

법무부, 제2회 월간업무회의 생중계

- 지난달 첫 생중계 이어 정책결정과정 공개 정례화 -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5월 22일(금) 14시, 제2회 ‘월간업무회의’를 개최하고 회의 전 과정을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(‘법TV’)을 통해 생중계합니다.

이번 회의는 지난달 첫 생중계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4월 월간업무회의의 연장선으로,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에어건 분사 중상해 사건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▲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보호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, 그 외에 ▲제9회 지방선거 범죄 엄정 대응, ▲동물권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추진 등 당면한 주요 정책에 관한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.

정성호 법무부장관은 “회의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히며, “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대변인실	책임자	대변인	최태은	(02-2110-3035)
		담당자	서기관	이상우	(02-2110-3749)